

2022 OPEN! 20.

‘고백과 선포로 승리하는 영적전쟁’ (고백과 선포의 원리)

[요한1서 1:19] 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 승리를 원하는 삶

성도는 ‘승리’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링’위에 있는 복서 같기 때문이다. 분투가 있다. 다툼이 있고 더 나아가 전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한다.

[에베소서 6:12-13] 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말씀에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다.

- (1) 성도의 삶은 ‘싸움’이다. 이 관점에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투함’이다. (12 우리의 싸움은~)
 - (2)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12~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
 - (3)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무장해야 이길 수 있을 만큼 치열하다.
 - (4) 가만히 있는 싸움이 아니라 ‘대항’해야 한다. (13~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 (5) 승리의 결과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승리의 고지위에 ‘서는 것’이다.
- 성도는 위의 5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2. 하나님에 대한 오해

- (1)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 성도가 영적전쟁을 한다.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힘의 출처이다. 영적전쟁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 (2)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싸움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 (3) 하나님에 링 위에서 나와 함께 싸우는 코치이다.

3. 실전 - 고백과 선포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이론과 사상과 문화를 동원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를 끊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전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과 선포’다.

(1) 고백의 중요성. (고백은 보호와 연결이 되어 있다. - 고백하면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고백에 능력이 있다. ‘고백(告白, Confession)은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행하는데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고백은 관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서로에게 감추어 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감추어 둔 것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게 ‘안정감이 있는 신뢰 관계’를 말한다. 그 관계의 표본이 가족 관계이다. 가족은 무엇인가? 나는 가족이고 가족은 나이다. 나와 가족은 동일시된다. 분리될 수 없다. 가족은 계약관계가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어 낼 수 없는 연약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자신의 모든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연약관계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13:7]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사랑은 선택해서 덮지 않는다. 사랑은 선택해서 믿지 않는다. 사랑은 선택해서 바라지 않는다. 사랑은 선택해서 견딜 만한 것만 견디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기쁨 뿐만이 아니라 슬픔, 아픔, 수치심, 정죄감, 연약함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시다. 이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날 조건이 되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라. 누구에게 가셨는가? 정죄감, 수치심,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가셨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사랑으로 덮어 주셨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 주셨다. 왜 그런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백은 그와 같은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진짜 관계가 되고 진짜 공동체가 되고 진짜 스물이 된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고백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요한1서 1:6-9] 6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8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은 어둠 속에서 거짓말하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8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고백’하는 것이다.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고백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이다. 사탄의 근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공격무기가 바로 고백이다. 이기려면 ‘고백’해야 한다.

(2)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도와달라 고백해야 한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고백이 있다. 간구의 고백이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영역이 이렇게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또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고백합니다’

강력한 고백의 기도이다. 미리 하나님께 고백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안에서 이미 보호를 받게 된다. 고백은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호 해달라고 기도하라. 반드시 연약함을 미리 하나님께 고백하라. 하나님의 이해와 보호와 이길 힘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관계가 진짜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진짜 사귀이다.

4. 선포 (proclamation)

고백보다 더 강한 단어이다. 영적 전쟁에 쓰인다. 전쟁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권위를 갖는다. 우리의 상황과 삶에 일어나는 셀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의 선포는 권위가 있는 왕이 아주 특별한 상황과 장소에 가서 권위로 그 상황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선포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다. 영적전쟁에서 선포는 필수적이다.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령의 목소리이다. 나팔을 불고 선포한다. 왕의 권세가 전령에게 위임 된 것이다. 선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마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Mark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단어로 ‘선포 (preach)’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끝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책과 설교와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 그 근거가 마24:14 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주체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다.